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2022년도 광림교회 선교비전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평온한 일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깊숙이 침투한지 750여일이 지난 2022년 새해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너머의 삶이 어떨지 결코 단언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광림교회는 수많은 변화와 단절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끈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고 성숙한 신앙공동체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꾸준히 이어왔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 임원들에게 “Beyond Corona, 코로나 너머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좌절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속에서도 생명적 신앙으로 믿음을 전하는 사명을 광림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년에는 국내 지성전 10개와 해외 10개국 선교센터 설립이라는 교회 비전에 따라 선교의 영역이 더 확장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동탄광림교회가 내년 봉헌을 목표로 올 3월 기공식을 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성도들은 어려운 때임에도 동탄 지역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완공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의 봉헌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두루 거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신학 교육을 통해 목회자를 양성하고 파송하며 러시아를 넘어 일본까지 복음의 확장에 힘쓰는 역할에 앞장서게 된다.

잠비아선교센터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 이어 아프리카 대륙 중앙 남부에 위치한 잠비아에도 선교센터를 건축한다. 잠비아는 기독교 인구가 75%에 달하지만 국민의 약 13%가 에이즈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조혼 문제로 18세 미만의 많은 어린 여성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광림교회는 2018년 김정석 담임목사와 월드비전이 함께 잠비아에 방문한 이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교센터 건립을 계획해 왔다. 이 곳에 예배당과 선교사 주택, 여성

직업 학교와 보건소가 세워진다.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광림교회 남·여·실업인선교회는 동탄광림교회 건축 헌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선교구에서는 기도회와 수련회를 갖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성도들은 속회와 선교회로 모여 생명적 신앙의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박희운 기자

2 광림의 강단  
십자가의 길

3 광림 스토리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

4 하나님을 만나다  
사회사업위원회 사랑의 돌봄

5 다음세대  
샤이닝브릿지 100

6 믿음의 현장  
신임위원장들의 비전

8 특집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앙성경 이야기

# 십자가의 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마가복음 13장 13절)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는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 무언가를 배우고 따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십자가(죽음) 이후의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쁨과 생명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어떤 복보다도 귀한 것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복과는 먼 삶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던 건강, 재물, 성공 등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성도의 삶이며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핍박과 외로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참 기쁨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 첫째, 십자가가 삶에서 체험 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은 체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사실이 나와 상관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될 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체험될 때 나를 살리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며, 절망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



마가복음 13장 9~13절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 사람이 너희를 끌어가 담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사건이 되어야 하고 체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 둘째, 고난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즉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4~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과 절망,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셋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다’는 것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폴 트리니에는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시기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시련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또 때로는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한지가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견디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견디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자기부정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 아름다운 공동체, 4선교구 겨울 수련회

1월 22일,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



지난 여름 수련회에 이어 선교구 자체로는 처음 시도되는 수련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영혼의 쉼과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던 수련회를 떠올리며 수도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오랜만에 선교구 식구들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설렘으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2022년 1월 22일, 오후 3시 광림 수도원에서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4선교구 영성훈련과 동탄광림교회 건립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기로 계획하고 정용식 선교구 담당목사님과 세 분 전도사님들의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으나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수도원에 도착하니 걱정했던 마음이 부끄럽게도 이미 많은 선교구 식구들이 도착해서 예배당으로 향하

며 서로 답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기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구 식구들이 예배당을 채워주셔서 4선교구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느껴졌습니다.

지난 가을 잠비아 우물 봉헌을 위한 건기대회에도 수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계획보다 몇배나 많은 우물을 봉헌할 수 있었음에 큰 감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4선교구 식구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용식 목사님과 유다지파, 스테반교회 집사님 가정의 인도로 찬양의 시간에는 목청껏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으며 코로나의 종식과 나라와 교회, 동탄교회 건립과 잠비아 선교센터 건립, 가정과 개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특히 담임목사님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 참석하셔서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으로 강력한 은혜의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와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동탄광림교회의 건립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갈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대로 동탄광림교회 건립을 위한 첫 번째 씨앗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벼들을 쌓는 헌금을 봉헌한다고 생각하니 더 보람이 느껴졌고 모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우리의 첫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동탄광림교회가 아름답게 봉헌되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즐거운 경품추첨의 시간! 열 다섯 분의 선교회 식구들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모두 다 박수를 치며 함께 즐겼습니다. 또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맛있는 ‘행복 찹쌀떡’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찹쌀떡의 이름만큼 행복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4선교구는 더욱 하나 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4선교구 사랑합니다!

송호연 권사(4선교구)

## 포토 뉴스



**교회학교 교사 임명예배**  
2월 6일 주일저녁예배에서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가졌다.



**방송문화선교위원회 신년예배**  
1월 30일 방송문화선교위원회 신년예배를 드렸다.



**2022년 상반기 속회공과**  
상반기 속회공과가 발행되었다.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2022년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

제10회 사단법인 광림 총회



제10회 사단법인 광림 총회 및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가 2022년 1월 23일 예수와 홀에서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목적으로 세워진 사단법인 광림은 광림주간보호센터, 예수와주간보호센터, 이레센타를 통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여명의 발달장애인의 자립,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미술회화반

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 결산 승인 및 사업보고가 있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달려제작 및 판매와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사단법인 광림의 이사장인 김정석 담임목사

는 빌레몬서 1장 4절 ~7절 말씀을 통해 빌레몬처럼 사랑과 믿음의 봉사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관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발달장애인이 더 나아진 환경속에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새해에는 웨슬리 교육관의 환경개선 공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렸다.

사랑부 교사 임명식에서는 부장단에 이정우 권사(관재부), 김영주 권사(1부), 이강숙 권사(2부), 전창수 권사(3부), 주애일 권사(4부)가 임명되었고 교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김남주 교사 외 11명의 모범교사와 20년 근속의 김상수 교사 외 8명의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었다.

사랑부 위원장 우형진 장로는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부가 되기 위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

이정순 기자

## 담임목사 동정



- 1/13 여선교회 총연합회 월례회 청장년선교회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이취임예배 교사 임명예배
- 2/9 수요일의신학
- 2/10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위원회
- 2/13 광림남교회 남선교회헌신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내 인생의 말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이춘재 집사를 만나 결혼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속회예배 나눔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린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막내 이모를 따라 교회를 갔던 어렸듯한 기억,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없어 슬프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던 기억,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서나 지하철역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라는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광림교회 권사님이신 어머니님과 주일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부 찬양 예배를 드렸던 저는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았고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좋았지만, 기도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궁금해하며 기도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20년 전의 제 모습은 신앙심 없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와 십일조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못할 것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제 모습은 하루를 새벽기도로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행복과, 십일조 뿐 아니라 더 많은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저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아직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시는 어머니님과 여선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사랑하는 속회식구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기도하므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선 집사 (여선교회총연합회 B마리아 선교부장)

설날 맞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사랑을 베풀다

<사회사업위원회> 1월 26일 사랑의 돌봄 행사 가져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최재환 장로)는 1월 26일 오전 5시30분부터 설날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광림교회에서 10여년 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매월 한차례로 변경되었다가 최근에는 격월에 한번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장소도 종전에는 장천홀 1층 로비에서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장천홀 들어오기 전 입구에서 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은 전원 안전캡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어르신을 맞이한다.

이날은 교회에서 가까운 선교구 지역이기도 한 8선교구에서 김상문 연합회장을 비롯 연합회 임원들이 찾아와 주었으며, 봉사자들을

격려한 유제석 목사는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선을 베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바라고, 이른 새벽 나와 수고를 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한다”고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압구정역 지하철 도착시간에 맞춰 5시40분쯤 두터운 외투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하더니 금세 많은 인원들로 골목길이 북적거렸다. 이날은 지난번 성탄절 행사와 마찬가지로 원래 정해진 첫째 주가 아니었지만 사전에 알려 준 탓인지 평소와 다름없는 22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 왔으며, 이들에게 명절 떡과 사탕, 두유,

한방과스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

최재환 장로는 “장로로 부름받고 사회사업위원장을 맡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이러한 돌봄 행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격월로 행사를 실시하겠지만 뜻깊은 날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추진할 생각이며, 다음 차례는 5월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사업위원회가 해 온 일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앞장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선물 중에 성경구절로 포장된 사탕은 김명진 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설날을 맞이하여 이날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안병철 권사가 본사직원 2명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후원하였다. 안 권사는 “코로나로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 봉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은혜가 찾아오음을 깨닫게 된다.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나 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득섭 기자

남선교회 신임 스테반선교회장 교육

1월 23일 주일 사회봉사관에서 실시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1월 23일 주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서 신임 스테반 선교회장들에게 남선교회 소개 및 스테반선교회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대하여 남선교회 스테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승욱 권사는 “스테반선교회가 지난해 32개에서 올해는 39개로 늘어났다. 올해 15명이 처음으로 스테반선교회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들에게 선교회 운영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 교육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광림교회의 교인들을 연령층으로 나누었을 때 청장년부를 지나 스테반선교회로 들어오게 된다. 연령으로 봤을 때 40세에서 52세까지다. 다음세대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반선교회이며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한 박기연 장로는 “남선교회총연합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스테반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남선교회가 활력을 얻게 되고 나아가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는 생각

으로 예산을 비롯하여 스테반선교회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러한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서 올해 스테반 개체선교회 수가 늘어났으며, 남선교회 총연합회에도 기획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장을 스테반이 맡게 되었다. 예전에 비해 광림교회 스테반 선교회원들의 연령대도 높아졌지만 교회가 젊어지면 스테반의 부흥이 꼭 필요하며, 오늘 이렇게 선교회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는 것은 스테반이 처음이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회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은 스테반 부센터장 이주철 집사가 맡아 광림교회와 남선교회 총연합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알려 주었다. 또한 선교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선교회 월례회를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조언해 주었다. 이날 오후 처음으로 선교회장이 되어 교육에 참석한 한 집사는 “선교회장에 처음 임명되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이 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궁금한 것이 해소되고 앞으로 선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하였다.

이득섭 기자

# “전도 할 수 있음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 청년부 BOAO 전도팀 호빵거리 전도



광림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보아오 (BOAO) 전도팀은 지난 겨울 성탄을 맞이하여 기쁨을 나누고자 1,225개의 호빵을 준비하여 호빵 거리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5차례 토요일마다 밀레니엄 공원 앞에서 추운 겨울 따뜻한 호빵을 나누면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교회 인근 이웃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래 거리전도팀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마다 교회의 인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왔던 BOAO 전도팀은 지난해 말, 헬라어 '외치는 자라는 보아오(BOAO)로' 팀명을 바꾸면서 새롭게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제 팀장은 "거리에서 외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호빵을 통해서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

사했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외칠 때마다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놀라게 느꼈던 것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호빵을 나누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나는 호빵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여기고, 또는 호빵을 준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 전도를 통해 전도를 하는 것이 은혜고 이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심이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주시며,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주시며, 예수님을 증언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체험되었고, 더욱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전도에 참여했던 팀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눌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이은창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장성민 형제) "이번 전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생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김희경 자매) "호빵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크게 외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호빵전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성욱제 형제)

앞으로도 광림교회 청년부의 'BOAO 전도팀'은 계속하여 거리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 신앙 간증

####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이 너무나 좋은 가정에서 한평생 자라왔고, 그 덕분에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저 사역만을 하는 교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교회로 느껴지게 되면서 청년이 되자마자 교회를 나와 '혼자만의 신앙을 키워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만류로 다시 교회에 돌아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잊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이었지만 혼자만의 신앙은 어리숙했던 저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 기간은 신앙의 성장이 아닌 주님을 떠나 세상과 가까워지는 일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였던 대학생 초반에는 나와 같은 시간을 지내온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였고, 청년부에서 배운 기도와 묵상 교육을 통해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임을 알고 그동안 저에게 맡기셨던 사역을 통해 저를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고등부 사역과 찬양 사역을 통해 남들보다 먼저 교회 예배를 필수인력으로 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신앙은 혼자서 키워가기 힘들다"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물들고, 주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동역자들의 신앙고백과 이끌어준 덕분에 지금까지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그 당시에 포기했다면 지금껏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연 성도(청년부)

# <샤이닝 브릿지 100> 교회학교 가정예배 캠페인

## 1/5/3 가정예배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에는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샤이닝 브릿지 100> 캠페인을 시행한다. 샤이닝 브릿지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이 신앙을 회복하여 미래를 준비함을 의미한다. 미취학, 아동부, 중고등부 100여 가정을 모집하여 7월 10일까지 매일 가정예배에 참여하도록 계획했다.

교회학교에서는 어렵게만 생각하던 가정예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QR코드로 접속 가능한 동영상도 제작하였다. 또, 가정예배의 형식과 시간, 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매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두란노출판사의 '153 가정 예배 노트'를 선택하였다. 153가정 예배의 포인트는 1/5/3원칙으로 자유롭고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1'은 성경 말씀 한 구절, '5'는 다섯가지 감사, '3'은 세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이든, 한 장이든 원하는 만큼 읽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노트에 기록하면 된다. 다섯 가지 감사는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다섯 개씩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고

함심하여 기도하면 된다. 아직 예배에 익숙치 않은 자녀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시도하여 매일 즐겁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샤이닝 브릿지의 목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형식도 길어도 자유롭게 진행하며, 예배의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교회학교 임재철 목사는 "샤이닝 브릿지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들에게 예배가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형식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예배를 시작하여 예배의 문턱을 낮춰 교회학교의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세우길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세미나, 샤이닝 브릿지, 겨울 제자학교 모두 '예배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위협받는 이 때에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예배의 문은 오늘도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오늘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길 간구합니다"라며 각 가정들의 샤이닝 브릿지 참여를 권면했다.

✚ 박희윤 기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2021년 부터 하반기 학부모&교사 세미나를 통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2022년 상반기

# 생명적 신앙으로 헌신할 <2022년 신임위원장 비전>



**재정위원장  
김병남 장로**

창지기 주일에 재정 위원장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된 창지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의 성취와 열매를 위해 오직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결단하고 기도드립니다.

최근 새벽예배에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인 교훈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

해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었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인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최대 지상명령이신 복음을 위해 잠비아 선교센터와 동탄 광림교회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올 한해 겸손과 섬기는 자세로 새롭게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방송문화선교  
위원장  
오해일 장로**

먼저 2022년 방송문화선교위원장이란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

립니다. 사명을 맡겨주신 담임목사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기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저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스텝들과 자원봉사자들

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하나 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맡겨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창지기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은혜롭게 돕는 최고의 전문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자기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와 방송문화선교위원들이 광림교회의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  
신성수 장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많이 부족한 저를 장학 위원장으로 임명해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 광림장학위원회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회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셨던 에벤에셀의 주님께서 앞으로도 장학위원회와 함께하시며 지혜를 주실 것을 믿

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새로운 직임을 맡고자 합니다.

미래에는 인재가 희망이며 경쟁력의 원천임을 믿고 믿음의 다음세대가 꿈과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주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장학위원회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장학위원회 사업에 참여해 주신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림교회가 지원한 학생들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리더로서 성장할 것을 믿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아교육위원장  
유선례 장로**

광림교회 신앙교육의 첫 관문인 영아부는 생후 30개월 이하 유아들이 믿음의 다음세대로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변하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영아 시절에 모세를 양육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벳과 같은 심정으로 영아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아부 교사들이 영적인 눈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지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전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각 분야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별된 지도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천문화선교  
위원장  
이창우 장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광림 교회(2023년)을 1년 앞둔 2022년에,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할 장천문화선교위원장의 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겪으면서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이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이 때, 장천문화선교위원회는 교회와 세상과의 담을 낮추어, 적극적으로 주님 만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과 시간의 교차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명실공히 세계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종합 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 문화의 수준 높고도 고결한 영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선도 원로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광림 10만의 식구들이 사회봉사와 장천문화선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독교 문화 주도의 자랑스러운 주인의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기독교 문화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광림교회, 장천문화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림남교회  
예배위원장  
김영덕 권사**

광림남교회 예배위원회는 예배안 내, 꽃꽂이, 중보기도, 주차봉사, 방송실등총5개부서에 68명의 위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조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광림남교회 예배위원회는 레위기 19:34의 심정으로 예배를 더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들이 세웠던 경건한 믿음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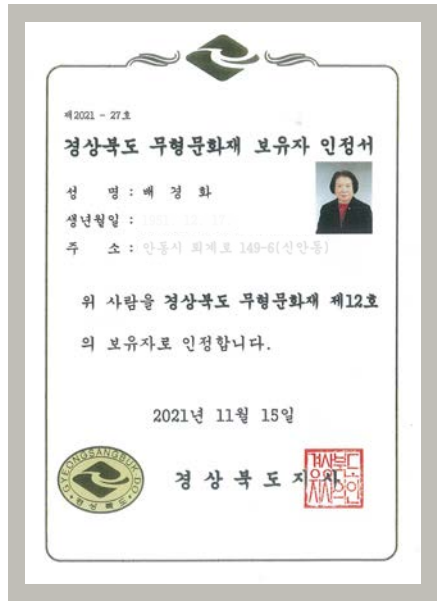
김선도 감독님께서 전하셨던 '예배의 경건

성과 진정성',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방향에 맞추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한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개방형 예배위원회가 되도록 힘을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길 기도하며 다니엘과 스테반처럼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림의 숨은 명인, 명장 탐방 1]  
**전통문화의 맥(脈)을 잇다**  
 무형문화재·명인  
 김연박 장로, 배경화 권사



김연박 장로는 아내 배경화 권사와 함께 모친(고(故) 조옥화)의 뒤를 이어 안동소주를 계승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김연박 장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0-가호로 지정되었으며, 1년 후인 2021년 배경화 권사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선정되었다. 대를 이어 명인과 문화재로 지정된 데에는 김 장로와 배 권사의 전통산업에 대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과 이학박사를 취득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기능과 학술을 겸비하여 부모님이 물려주신 전통적인 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온 어머니**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의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 중 하나는 안동소주다. 안동소주는 손님이 찾아오면 갈 때 오래 손에 들려주는 선물이다.

김연박 장로의 모친은 1983년부터 밀려오는 외래주를 타파하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술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먹고 친정과 시댁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술 빚는 방법 중 장점만을 골라

전통적인 안동소주 복원에 성공한다. 1987년 5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으며, 1990년 9월 제조 면허를 취득하면서 상품화하기 시작했다.

깊고 진한 향을 가진 증류식 소주가 처음 상품으로 나왔을 때 구입하기 위해 제조장 앞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1993년에는 현재의 위치(안동시 수상동)에 새로 공장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생산했으며 2000년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0호로 지정됐다.

집안 행사 등을 치르며 대대로 내려온 차례상 전통주 만드는 비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어머니(문화재, 명인)의 우수성은 해외 왕실에 까지 전해졌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999년 4월 21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영국 여왕의 73회 생일상을 차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졸업 후 건설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김 장로는 회사와 안동을 오가며 어머니의 제조 기술법을 배우고 익혔다. 그 후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왔다. 이 시기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부모님이 물려준 가업을 잘 계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고 했다.

전통주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함을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 들였다.

안동에 내려온 김 장로는 건축 전공을 살려 공장을 짓고 제조법 현대화에 나섰다. 어머니는 맛을 봐 도수를 맞췄지만 아들은 이를 기계화 해 표준화시켰다. 누룩만큼은 지금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 수제 누룩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음식박물관**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은 안동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다. 공장 1층에 위치한 박물관은 김 장로 부부의 정성으로 만들어졌다. 신라 토기부터 고려청자, 조선백자까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소줏고리 모형은 학습장·체험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통음식박물관에는 민가의 관혼상제 차림상과 전통음식 관련 자료 670여 점이 전시 중이다. 전시된 음식모형은 어머니와 며느리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 궁중의 수라상, 돌상, 전통혼례상, 회갑상, 제상 같은 상차림이 재연되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상 차림도 모형으로 만들어져 전시 중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김 장로와 배 권사는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유교집안의 외동아들인 김 장로와 달리 배 권사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미션스쿨인 이화여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신의 세례 날짜와 결혼날짜가 같은 날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임을 확신했다. 믿지

않는 시댁을 구원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평생을 기도한 배 권사는 시부모님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했다.

결혼 후 믿지 않던 김 장로는 주일 아침이면 배 권사를 교회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차안에서 기다리는 지루함은 그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어지게 했다. 예배와 성경공부에 열심인 아내의 모습에 감동한 김 장로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에 교회 출석을 결심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뜻하지 않게 회사 그룹전체의 신우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직분이 믿음을 키우듯, 회장직을 맡으며 그의 믿음은 크게 성장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교회 내에서도 교구연합회장과 남선교회 홍보, 예배, 사회사업, 국내선교본부장, 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장로 취임 후에는 장학위원장, 남선교회 총연합회 회장, 관재위원장, 재정위원장으로 섬겼다. 은퇴 후에도 사단법인 광림복지재단 이사로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다.

배 권사는 교구에서 지구장과 선교회장으로 일했고 여선교회에서도 오랜 기간 봉사했다. 그 시간들이 큰 위로와 보람이었다며 부르는 날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고 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광림교회에 몸담은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기 위해 토요일 밤이면 열차를 타고 상경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손 대대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김 장로와 배 권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계승 발전시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오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자손들 또한 지금처럼 교회와 삶의 처소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



##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누가복음 2장 14절

요셉은 만삭(滿朔)이 되어 가는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이었다. 다윗 왕도 그곳에서 태어나 양을 치는 목자로 소년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길은 멀었고 특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로서는 버거운 여행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지쳤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다. 여관이 있었지만, 이미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 마리아는 곧 태어날 아이로 인해 매우 난처했다. 요셉은 여관 종업원을 붙잡고 하소연했다.

“아내가 만삭이라 몸을 누일 곳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방은 이미 다 찼고, 마구간이라도 괜찮으시다면 ...”

요셉은 서둘러 마구간을 빌렸다. 마리아는 그날 밤, 아기를 낳았다.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다. 마리아는 강보로 아기를 싸서 빈 말구유에 눕혔다. 초라한 마구간

은 성스러운 장소로 변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밤에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다고 언급한다. 그러자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말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별을 연구하다가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가지고 온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고 언급한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일러 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뜻인데, 유대교 문화권에서 흔히 쓰이던 사람의 이름이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여 사내아이를 낳았을 경우, 몸이 피로 더럽혀져 이레 동안 부정하다고 보았다. 아마도 마리아 역시 율법을 준수하여 33일 동안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일이 지난 후에는 아들 예수를 위한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짐비들



▲ 성탄(聖誕)의 밤 -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동들과 하늘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이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분위기로 강조하고 있다. 코레지오의 작품.



▲ 아기 예수의 정결 의식 -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의 봉헌을 위해 성전을 방문하자, 오래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장면이다. 특별한 장식 없이 오직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이 빛 속에 가득하다. 렘브란트의 작품.

가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었을 것이며, 사제는 마리아를 위하여 제물을 봉헌하며 정결례를 거행했을 것이다. 만약 양 한 마리를 바치지 못했을 경우,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짐비들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에 봉헌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롭고 독살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아기 예수를 안은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오자, 시므온은 감격에 겨워 아기 예수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말에 놀라워했다.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찬미하는 말을 하였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찢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였다. 그녀는 무려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비로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